FX Market Daily

2025-03-07

전일동향

전일대비 12.10원 하락한 1,442.40원에 마감

6일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일대비 12.10원 하락한 1,442.4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종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9.50원 하락한 1,445.00원에 개장했다. 장 초반 환율은 유로화 강세 및 미국의 관세 정책 일부 유예에 따른 약달러에 하락했다. 그러나 저점 매수에 환율은 상승 전환하며, 1,442.40원에 종가(15:30 기준)를 기록했다. 주간장중 변동 폭은 7.2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968.62원이다.

전일환율변동

구분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매매기준율)
달러	1445.00	1451.00	1437.80	1442.40	1441.60
엔화	976.93	982.12	964.77	975.79	-
유로화	1569.69	1570.13	1552.74	1555.80	-

* 시가/고가/저가/종가: 달러는 익일 06:00(美 서머타임 해제 시 익일 07:00) 기준, 엔화 및 유로화는 15:30 기준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1.87	-6.74	-14.19	-28.11
결제환율(수입)	-1.53	-5.77	-12.32	-24.67

*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

*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https://www.ksure.or.kr/rh-fx/index.do) 확인

금일 전망

관세정책 불확실성에...1,440원대 초중반 중심 등락 전망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2.45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종가(1,442.40) 대비 5.05원 상승한 1,445.0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위험회피 심리 등에 상승 압력이 소폭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USMCA에 해당하는 모든 품목의 관세를 4월까지 유예한다고 발표하며, 캐나다와 멕시코 제품에 대한 관세 유예 대상을 추가했다. 이에 시장에서는 미국 관세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뉴욕증시는 관세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회피 심리에 다우지수 -0.99%, S&P −1.78%, 나스닥 −2.61% 마감했다. 한편 ECB는 예상대로 금리를 25bp 인하했으나, 향후 금리 인하에 대한 일시 중단 가능성을 시사했다. 4월 회의에서 금리인하 중단 기대가 커지며 유로화는 강세 폭을 확대했다. 엔화는 일본 최대 노동조합 렌고가 올해 6%대 임금인상을 요구했다는 소식에 BOJ 금리인상 기대로 연결되며 상승 마감했다. 달러화는 트럼프 관세 연기 결정에도 주요 통화 강세에 밀려 0.11 하락해 104.19로 마감했다. 금일 환율은 위험선호 심리 위축에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일 트럼프의 한국을 겨냥한 관세 발언 및 국내증시 외인 순매도 등도 환율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글로벌 달러 약세 및 수출업체 네고물량 유입 등에 환율의 상단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440.60 ~ 1450.80 원

체크포인트

-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1382.08 억원
-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5.05원↑
- ■ 美 다우지수 : 42579.08, -427.51p(-0.99%)
-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103.21 억달러
-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7149 억원

※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